“불교 수익사업, ‘자리이타’ 정신에 바탕을”

주목! 불교 논문

종교시장의 상업주의 현상과 한국불교 수익사업의 정향(正向)

종교시장은 여러 종교들이 사람들로부터 선택되어지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적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다. 종교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상업주의는 피하기 어렵다. 한국불교 종무행정과 사찰 경영을 연구해온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선학〉67호(한국선학회 간행)에 ‘종교시장의 상업주의 현상과 한국불교 수익사업의 정향(正向)’을 게재했다. 다종교화와 탈종교화로 인한 종교의 생존 경쟁에서 심화되고 있는 종교시장의 상업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불교 수익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조기룡 교수의 논문을 발췌 · 정리했다.

정리=신중일 기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홈페이지 화면. 조계종출판사를 승계해,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모토로 새로이 출범한 영리법인이다. 불교 수익사업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종교시장’이라는 말은 왠지 대중에게 낯설 수 있다. 혹자는 이 말에서 거부감 내지 불경함까지 느낄 여지도 있다. 이는 종교시장이 성스러운(聖) ‘종교’와 세속적(俗) ‘시장’이라는 상반된 속성의 두 용어가 결합된 합성어라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거부감을 떠나서 현실사회를 직시하면 종교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종교시장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으로 거래되듯이 종교가 마치 상품처럼 선택되어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화, 안정, 안식 내지 철학, 예술, 나아가 사회적 소속감 등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제공하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신앙으로 삼고는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종교의 선택도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의 교환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시장론자들에 의하면 종교시장에서도 여타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업주의가 주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교조직의 비종교재 또는 비종교활동을 통한 수익이 용인된다. 그러나 붓다는 승가의 상업주의를 경계하여, “출가자는 사고파는 행위로부터 멀리 떠난다”라고 설하였다. 또한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제20조 판매계(販賣戒)는 “어떤 비구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라고 하여 비구의 매매행위를 금지한다. 불교의 교조인 붓다는 승가의 비종교활동 수입 즉, 수익사업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시장론의 주장과 붓다의 교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특히 비종교재나 비종교활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두고는 상충한다. 불교교단의 행위 내지 선택의 기준은 붓다의 교설이 되어야 한다. 한국불교가 세속적 영리조직과는 달리 탈세속적 종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는 불교신도의 보시금만으로는 존속하기 힘든 한국불교의 상황에서 붓다의 교설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교조직의 기업화

오늘날 한국사회의 종교교단들은 수익을 위해 기업을 직접 경영한다. 한국종교시장에서 종교조직이 기업의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가톨릭의 ㈜평화드림, ㈜평화종합건설, ㈜평화IS와 조계종의 ㈜도반HC를 들 수 있다.

한국가톨릭은 ㈜평화드림, ㈜평화종합건설, ㈜평화IS 등 3개의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드림은 한국가톨릭 교단 및 학원 산하기관에 대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가톨릭 교단에서 소비되는 물품은 모두 이곳을 통해 구매되어 유통된다. ㈜평화종합건설은 한국가톨릭 교단과 학원 산하의 시설 신축 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 ㈜평화IS는 가톨릭 병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조계종출판사를 승계하여,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모토로 출범한 종단의 영리법인이다. ㈜도반HC는 ㈜조계종출판사와 ㈜도반HC기획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도반HC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부, 달력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승소(유통)사업부·불교용품전문매장 승소 등의 부서로 조직되어있다. 자회사인 ㈜조계종출판사는 경전과 종단의 교재 및 경전 출판 불사,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발굴하고 불서로 제작하는 종단 대표 출판사이다.

현대사회서 종교도 자본주의 영향
부처님 “사문 판매행위 멀리해야”
붓다 교설 입각해 수익구조 고민을
正命적 사업인 ‘불교명상’ 주목해야

종교교단의 기업화는 종교교단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교단 산하 조직과 단체에 좋은 물건을 공급하고 우수한 건물을 짓고 그로 인한 수입은 교단 사업에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준다. 더 나아가 종교교단이 운영하는 기업은 여타의 기업과는 다른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서 윤리경영에 근거한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베풂’이라는 교리와 신앙의 논리 속에 생존해야 할 종교교단이 ‘이윤’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때 상업주의 폐해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자칫 종교조직이 영리조직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다.

사찰경영과 수익사업

조계종의 종단 중앙이 기업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 개별 사찰들은 기존의 기념품점과 카페 운영에서 나아가 건강식품과 식재료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납골당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기념품점과 카페 그리고 납골당의 운영은 전국 사찰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건강식품과 식재료의 생산과 판매는 여러 사찰들이 모색하고 있지만 기념품점이나 카페의 운영보다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찰들이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영농법인 설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사례에서는 통도사가 ‘영축총림 영농조합법인’을, 송광사가 ‘영농조합 솔두레’를, 봉화 보광사가 ‘영농조합법인 발우’를, 천안 승천사가 ‘영농조합법인 승천’을, 영광 불갑사가 ‘불갑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농법인은 개별 사찰 특히 농촌의 사찰들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방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해도 제값에 팔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높이는 영농법인은 시대에 적합한 농촌과 사찰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이 아닌 포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친화 포교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사찰과 지역주민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양자의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포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수익구조 정향은

혹자는 한국승가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여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붓다가 “(출가자는) 사고파는 행위로부터 멀리 떠난다”라고 하였기에 혹자의 주장이 가장 이상적인 여법한 방안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국승가가 이상을 좇아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승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은 종단과 사찰의 수익 창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은 자리이타의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다. 종단과 사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수익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불교단체의 자리이타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의료사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두 분야는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 존재 목적과 다르지 않다. 한국불교종단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불교정향 사업 사례: 불교명상

한국사회는 ‘웰빙’을 지나 ‘힐링’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힐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관련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명상산업’이 급성장하는 추세도 보인다. 한국사회의 힐링 현상에 불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다. 조계종은 권역별 명상힐링센터 건립을 종단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음치유가 종교의 본연적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포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교명상의 사업목적은 자리이타적이다. 불교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행한 수행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명상의 근원이 불교수행이기 때문에 불교명상의 사업목적은 탐·진·치에 얽매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붓다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였듯이, 그리고 일체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자 전법을 하였듯이, 불교교단과 여타 사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함에 있어야 한다.

불교명상의 사업내용은 정명적이다. 정명은 ‘바른 생활’과 ‘바른 생계’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출가자에게는 바른 생활 수단을, 재가자에게는 바른 직업을 지칭한다.

더불어 불교명상의 수익활용은 보시적이어야 한다. 한국불교는 불교명상의 상업화를 경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창출된 수익의 보시적 활용이다. 한국불교가 명상을 사업적 관점에서 전개할 때 불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명상을 현실적인 재정의 부족 차원에서 사업으로써 전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창출된 수익은 종단과 사찰의 성장에 한정하지 말고 대사회적인 분야에 지출함이 불교적으로 여법하다. 이것이 상업명상과 불교명상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조기룡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